

## 2016. 8. 9.(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 파주·연천서 11일 'DMZ 청소년 탐험대' 출정식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두 번째 행사가 오는 11~12일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서 열립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젊음, 평화와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여는 이 행사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00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자전거 투어와 걷기, 파주 평화누리길 걷기,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 등을 하며 DMZ의 가치를 체험합니다.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를 직접 체험하며 DMZ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지난달에도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7 cm

### 서울경제

2016년 08월 09일 (화)  
27A면 전국

### 경기도, 11~12일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

경기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제2차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 '젊음, 평화와 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을 걸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동정신과 함께 DMZ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참가자 접수가 마감일보다 20일 정도 조기 완료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다. /윤종열기자

9.3 X 4.9 cm

## DMZ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11일 2차 출정

‘DMZ 청소년 탐험대’가 오는 11일 2차 출정에 나선다. 청소년들이 DMZ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DMZ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달 23·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11·12일 1박 2일 동안 평화누리길

(22km)을 자전거와 도보로 종단하며 환경정화 활동과 병영체험, 다큐멘터리 영화 감상, 타임캡슐 작성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젊음, 평화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DMZ 탐방을 통해 청

소년에게 분단의 역사를 되새겨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차 행사는 참가자 모집이 예정보다 20여일 앞당겨 마감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며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은 물론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 등 지식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17.6 X 4.7 cm

## 청소년 DMZ 탐험대 두번째 원정 나선다

### 11일부터 투어·봉사활동 예정

지난달 청소년들에게 비무장지대(DMZ) 체험기회를 제공한 경기도 ‘2016 DMZ 청소년 탐험대’가 두번째 원정을 떠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12일 양일 간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제2차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가 개최된다.

‘젊음, 평화와 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을 걸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동정신과 함께 DMZ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프

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참가자 접수가 원래 마감일보다 20일 정도 조기 완료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 등 지식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탐험대원들은 1박 2일 동안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평화누리길 트레킹은 물론,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일차에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자전거 투어

(군남댐~임진물새롬랜드 11.5km 코스)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임진물~어가정삼거리 4.7km 코스) ▶MIRACLE LAND DMZ 다큐멘터리 감상 ▶단결 레크리에이션(퀴즈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또 태양의 후에 촬영지이자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시설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병영체험을 하며 통일의 중요성과 안보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도 제공된다.

2일차에는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울곡습지공원~장산전망대헬기장 5km 코스) ▶타임캡슐 작성하기 등을 체험하고 해 단식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조윤성기자**

16.8 X 9.9 cm

# 뚜벅뚜벅... 두 발로 느끼는 'DMZ 가치'

## 11~12일 연천·파주 일원서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두번째 행사가 오는 11~12일 연천과 파주 일원에서 열린다.

'젊음, 평화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을 걸으며 DMZ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주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고생과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첫 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자전거 투어(군남댐~임진물새롬랜드 11.5km),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임진물~어가정삼거리 4.7km), 단결 레크리에이션(퀴즈쇼, 장기 자랑),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시설인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 등에 참여해 DMZ의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이튿날에는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울곡습지공원~장산전망대헬기장 5km), 타임캡슐 작성하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중·고생은 8시간, 지도자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16시간의 자원봉사활동도 인정되며 우수 참가자와 지도자에게는 표창장도 수여된다.

/안경환기자 jing@  
11.8 X 9.3 cm

## 청소년 비무장지대 체험 11~12일 연천·파주서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DMZ)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두 번째 행사가 11~12일 연천과 파주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젊음, 평화와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여는 행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0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군남댐-임진물새롬랜드 11.5km) 자전거 투어와 걷기, 파주 평화

누리길(울곡습지공원-장산전망대 헬기장 5.0km) 걷기, 캠프 그리브스 병영 체험 등을 하며 DMZ의 가치를 체험한다.

도 관계자는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며 DMZ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3~24일에도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열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11.6 X 7.4 cm